

# 지역주민 和合 · 發展의 계기

## 제2회 가산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제2회 가산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및 마치미게이트볼장 준공식이 5월1일 오전10시에 포천

시 가산면 우금리 게이트볼장에서 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 및 준공식은 개회식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대회사,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이택순 우금리 1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1998년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약 300여평의 부지를 사자장자, 조경공사, 운동장 등을 설치하고 2004년 마을 컴퓨터 일부를 포천시 보조금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했다.

또 읍들이 130여명 규모의 철골, 천막공사를 1천700만원(이흥규 우금리 노인회장 1천만원, 가산면장 400만원, 마을회 300만원)을 들여 전전후 게이트볼장을 완공했으며 바닥 인조잔디 공사에 이흥규 전마치미 게이트볼회장 1천400만원을 지원해 준공했다.

이날 게이트볼대회는 가산게이트볼(회장 이한중) 2개팀, 갑암게이

트볼(회장 이강휘) 2개팀, 우금게이트볼(회장 원유문) 2개팀, 마치미게이트볼(회장 이흥규) 2개팀 등 8개팀이 경기를 벌였다.

이날 정종근 가산체육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 게이트볼장을 완공하고 뜻깊은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기회가 확대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계순 가산면장은 축사를 통해 "가산면에 젊은 시절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오신 어르신들이 즐기실 수 있는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대회가 승부를 떠나 가산면 게이트볼 동호회원 모두가 하나되는 대화합의 잔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우금게이트볼팀▶준우승 마치미게이트볼팀▶공중3위 방죽게이트볼팀▶갑암게이트볼팀▶최우수상 원복재(우금게이트볼)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충훈탑 호국영령 제위 특별추모제 원불교 포천교당 대각개교절 경축

원불교 포천교당은 원기 92년을 맞아 지난 4월27일 대각개교절(원불교가 열린날) 전야 행사로 청성공원 충훈탑에서 한시간 동안 원불교 교도 25명이 천도제를 거행했다. 이날 천도제에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개같이 버린 포천출신 호국영령에 대한 원불교 포천교당이 대각개교절에 맞춰 진행했다. 추모제는 오인달 회장의 충훈탑 헌화에 이어 좌중 10대, 개시, 입장, 충훈탑에 모셔진 영위소개, 법공의 노래, 심공, 성주3번, 동경, 축원문, 법문대독, 성가 순으로 진행했다.

를 맞이하는 포천시 호국영령제위에 대한 대재제비하음신 법력과 힘을 내리시어, 호국영령제위께서 만일 선도에 들지 못하였거든 바로 선도에 들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 정법을 찾지 못하였거든 바로 정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 성불의 길이 열리지 못하였거든 바로 성불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 각할기타동아리 춘계수련회



4월28일 영북면 각할 기타동아리(회장 유창열)는 기초반 및 중급반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정호수에서 춘계수련회를 가졌다.

기타를 통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자아발전과 음악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4~50대 부부, 모녀, 모자간 등 가족 구성원이 많아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타를 배우고 있다.

각할 기타동아리는 돌아오는 6월 2일부터 매월 정기적인 공연을 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과 연습을 하기로 다짐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뜻을 한데 모으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역부장 hsd5333@hanmail.net

## Essay 산나물 예찬(禮讚)

요즘 유아들은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 같다. 산과 들에 연산홍 철쭉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도 모르는 아이가 더 많을 것 같다.

들도 없는 내 아이로 키우다 보니 무서운 세상 밖에 내놓기가 겁나는 시절이니 자연의 변화를 알 수 있을까?

그래도 지역행사에서 나비도 꽃도 사람이 자연을 만들어 어느 한 정된 장소에서 구경 할 수 있고 주말농장이라는 밭에서 상추도 뜯고 고구마도 캐보니 신비한 맛을 볼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긴 하지만...

밤 하늘엔 별이 있어야 하고 모내기 철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요란한 밤! 이제 추억 속 먼 옛날 같지만 시골 어느 곳엔 그런 풍경이 아직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오월이면 집에 있을 여유가 없다. 그야말로 보양에 버금간다는 산나물을 찾아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니는 것이 일과 흡미로 생각하니, 그 즐거움 또한 행복지수를 높여준다.

산나물 찾아 가시답달 속에 넘어지고 험하면서 작은 고사리 군

락지라도 만나면 솔직히 하늘보다 반갑고 신이 난다. 높고 아픈 것쯤이야 상관없다.

작은 배낭 가득 채워진 풀잎들이 이저처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체험자만이 알 수 있다. 가끔 산토끼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놀라기도 하지만 후시나 산재지 만날까봐 더 무섭다.

집에 와서 달려 보관하는 나물과 금세 먹을 수 있는 단나물로 구분해 커다란 양푼에 갖은 양념에 단나물의 맛은 가히 일품이다.

문제는 나뉘먹을 서열을 짜다보면 고민이 생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야 하는가?

양푼에 있는 나물보다 주어야 할 곳이 더 많으니... 주고 싶어 마음 급한 우리집 아저씨! 고생한 걸 생각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썩 가지는 내 욕심!

순간 포착해 나를 무치는데는 단나물만 전문가가 없으니 꼭 무쳐서 나눠주란다.

은근한 칭찬 뒤에 복병 같은 협박 때문에 우리집 참기름, 들기름 남아있지 않는다. 뉘를 챙겨 나누고 나면 맛있는 것 먹었다는 호를



윤순옥 포천시의회운영위원회

갈에 미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오월이 다 가기 전에 나를 찾아 삼판 리다.

에구 그 기름 값이면 사먹어도 되련만... 산나물 맛에 취해 버린 내게 자동차 기름 값 생각할 땐가... 원년에는 짚순이라고 놀림도 받았는데... 산나물이 제철보약이라니 포기 할 수는 없지...

그런데 웬만한 산에는 산나물보다 사람이 더 많으니... 청산에 다래냉을 수난시대. 무한 경쟁시대 내 낚보다 행보가 빨라하니 풀이오는 길에 팔과 면지에 범벅이 된 풀은 과히 상거지여 버금간다. 속도가 조금 빨라도 교통이 저지 거지는 잡지 않겠지... 모습이야 거지일지 몰라도 마음은 모그 쳐서 나눠주란다.

은근한 칭찬 뒤에 복병 같은 협박 때문에 우리집 참기름, 들기름 남아있지 않는다. 뉘를 챙겨 나누고 나면 맛있는 것 먹었다는 호를

##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⑧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계절 5월도 어느덧 문턱을 넘어 여름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야구장뿐만 아니라 놀이공원과 많은 축제행사장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어린이들과 가족들로 가득합니다.

요즘을 같이 사교육비의 비중이 각 가정의 생활비를 넘어서는 사태는 비정상적인 교육시스템을 양산하고 지역의 경제활동과 소비의 위축을 초래하여 결국 경기의 둔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과 부모님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머리를 모아 의논하고 교육의 개혁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때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가 포천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이 포천으로 들어와서 경제활동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숙제로 남기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요즈음 자기만 알고 자각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심한 후보들에게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 웰빙 부사의(不思意) 안목(眼目)

'이제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또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는 말도 있다. 우선은 관심(關心)을 가져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관심이 없으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상황(狀況)이 벌어져도 인식(認識)하지 못한다. '관심'이 있다 해도 알지 못하면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눈에 들어오긴 해도 이해(理解)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안목(眼目)이다.

다는 것이다. 상식을 뛰어넘어 전문적(專門的)인 지식(知識)을 쌓아가는 것이다. 문사철(文史哲)에 대한 소양(素養)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문화(文化)와 예술(藝術)과 철학(哲學)에 대한 소양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문사철'이란 문학(文學)과 역사(歷史)와 철학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가 포천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이 포천으로 들어와서 경제활동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음악'을 알아야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미술'을 알아야 미술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무용'은 건축 조각 그리고 연극과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감상(鑑賞)할 수 있는 심미안(審美眼)을 키워야 그것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 자유기고 이동중학교 학생의 건강을 책임 맡고 있는 영양사 심해옥

2001년부터 7년간 약약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에 힘을 다하고 있는 사명 있는 심해옥 영양사를 포함한 3명의 조리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족이나 어렵고 힘든 농촌생활에 처해있는 시골 학교 학생들의 부실하기 쉬운 성장기에 영양상태를 점검하고 잘 관리하여 한치에 오차도 없이 영양과 위생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

료를 가지고 3명의 조리원과 한마음이 되어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시 또는 월별로 조리원을 위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후시 일어날 수도 있는 식중독과 집단 전염병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역소독과 매일 탕소독과 애드, 염소 소독물을 실시하여 철저한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와, 휴지,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며 처리함으로써 잔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족, 농가 소득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모든 조리원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자유기고

또한 월별 주제별로 식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교실에 게시함으로써 식생활 관련된 영양정보를 하여 헌신에 노력을 기울여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어스내 30이 되어 결혼을 해야 할 나이도 되었지만, 그보다 앞서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더욱 공부하며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을 볼 때마다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불평 없이 맛있게 먹어준 사랑스런 학생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뿐입니다.

## ‘세상을 보는 눈높이’

안목(眼目)이 중요하다. '안목'이란 세상을 보는 '눈높이'를 말하는 것이다. 눈높이를 높여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눈높이'를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눈높이를 높인다는 것은 지식체계(知識體系)를 높인다는 것이다. '지식체계'를 높인다는 것은 상식(常識)을 뛰어넘는

다는 것이다. 상식을 뛰어넘어 전문적(專門的)인 지식(知識)을 쌓아가는 것이다. 문사철(文史哲)에 대한 소양(素養)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문화(文化)와 예술(藝術)과 철학(哲學)에 대한 소양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문사철'이란 문학(文學)과 역사(歷史)와 철학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가 포천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이 포천으로 들어와서 경제활동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음악'을 알아야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미술'을 알아야 미술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무용'은 건축 조각 그리고 연극과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감상(鑑賞)할 수 있는 심미안(審美眼)을 키워야 그것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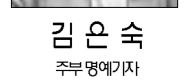
## 자유기고 고목나무와 지렛대

일요일, 산과 들에 물결물결 꽃과 나무의 새싹들이 어우러져 물감을 풀어 한쪽의 수채화를 그려 놓은 듯한 봄날, 우리 외할머니의 팔순잔치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열리고 있었다.

칠남매를 기르며 그 험난한 세상을 사시면서 그 자식들에게 사랑이란 이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할머니, 속은 타다못해 솟김이 되었고 그나마 할머니의 절제 말을 심어낸 전 먼저 보내고 막내 아들도 지난 추운 겨울 또 보내는 가슴저린 아픔을 겪으셨으니 타다 남은 솟김마저 이미 재가되어 버렸으리만 가슴아픈 메아리 들고 잔치분위는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어려운 정도로 독거 노인과 버려지는 아이들이 자고 나면 매스콜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세상, 하지만 나의 할머니처럼 행복한 노인 분들과 그 아들 손자 며느리 같은분들도 많이 계시리라는 마음의 위안을 삼아본다.

6. 25를 겪고 한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외할머니, 보릿고개를 만나 입하나 줄이려고 큰딸인 우리엄마를 열아홉이 하고 명상(冥想)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깊고 넓게 사유(思惟)의 밭을 갈아야 한다. 그래서 '바둑'까지도 문화(文化)로 끌어올리는 '인목'을 지녀야 한다.



김은숙 주부명예기자